

#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and of  
Child's Capacity for Self-Regulation on Child's Depressive Tendencies(DT)\*

조옥자(Ok Ja Jo)<sup>1)</sup>

현온강(On-Kang Hyun)<sup>2)</sup>

## ABSTRACT

The 612 4th- and 6th-grade subjec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 and two-way ANOVA, Pearson's 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ceived mother's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redicted child's depressive tendencies(DT). Abusive mothers were hostile and showed lack of concern for children's safety. Male children reported more neglect by mothers than female children. Younger mothers were more abusive. Higher maternal educ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neglect and positively related to lower DT. Mother's having a job was positively related to neglect. Mother's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as the greatest predictor of child's self-regulation; children who experienced more emotional abuse had lower self-regulation capacity and higher DT. Self-regulation of male children was positively while that of female childre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e.

**Key Words**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방임(Neglect), 자기조절능력(Capacity for Self-Regulation), 우울성향(Depressive Tendencies).

## I. 서 론

어린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어린이  
헌장 제 9조에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  
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아동학대 금지 규정을 명  
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 숨겨진 범  
죄라는 특수성과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1)</sup> 인하대학교 대학원

<sup>2)</sup> 인하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Ok Ja Jo, Departmen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Korea E-mail : okjajo@hanafos.com

성숙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인 전통의 영향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체벌에 대해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부모-자녀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 개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언론보도나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가면서 법적기반이 마련되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보편 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수혜자인 아동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으나,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적 역할에 초

점이 맞추어진 법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의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실제, 2004년 중앙아동 학대 예방센터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2,921건으로, 2002년과 비교해서는 약 17.9%(2,478건), 2001년에 비해서는 약 38.8%(2,105건)로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례 유형에 있어서는 방임이 1,514건(35.0%)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신체학대가 1,315건(30.4%), 정서학대 1,172건(27.1%), 성학대 203건(4.7%), 유기 126건(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자녀양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에 의해 학대 받은 아동의 특징을 한마디로 기술하기란 어려우며, 학대 받은 아동들이 어떤 뚜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성이 반드시 학대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Emery, 1989), 학대 받은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특성으로 공격성과 사회적, 정서적 위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김현수, 1997).

그러나 이러한 학대 결과는 아동에게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초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의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이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간 악순환이 계속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편 앞서 중앙학대예방센터에서 보고한 아동학대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아동이 우리 일반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유기는 학대로

분명히 인식하면서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응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학대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김영미, 2003) 오히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아동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이라고 하였으며(김양미, 2000; 연진영, 1992; 홍수경, 2003; 홍은주, 1998) 신체적 학대에 비해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김혜련, 1993; 원지영, 1999).

또한 정서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은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보다 더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협박과 욕설 등의 지속적인 경험은 자아 존중감의 저하 뿐 아니라 아이들을 우울하게 하며 내재화된 공격성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안동현, 2003).

이 외에, 아동의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도 학대보다 방임에서 더 높으며(이규숙, 1998) 방임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보다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적게 나타나며(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박철민, 2002)는 연구가 행해짐으로써 아동이 방임으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누적됐을 때의 결과는 신체적학대보다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관련된 선행연구

들 중에는 학대로 인한 분노가 내면화되면서 아동이 우울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강지영, 2002; 김재엽, 1998; 권자영, 1991; 박인아, 1999; 안동현, 2003; 이혜련, 1998; 정양숙, 2003; 추소정, 2002)하고 있는데 기존의 학대와 우울에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학대유형 중 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다루고 있어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하면서도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인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우울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우울이 성인에게만 존재하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동에게는 성인에서 볼 수 있는 우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가정은 아동은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다는 관점과 사춘기 이전에는 명백한 조울증이 희귀하다는 관찰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최근 아동 우울의 정의와 분류, 평가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아동에게도 성인의 우울과 유사한 뚜렷한 증후군이 실재한다는 입장에 점차 일치를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신과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에 있어서 외현적인 행동의 문제보다는 심리·정서적인 내면적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우울이 가장 심각한 정서장애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허정철, 1997).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Rosenthal(1969)은 유전적인 면을 강조하는 생화학적 이론을 통해 우울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Blatt(1974)는 유년 시절의 영양부족이나 어린 시절의 가족간의 원만치 못한 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정신분석학적면에

서 우울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Beck 등은 인지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왜곡되게 인지하거나,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때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Shaw (1977)는 우울증의 세 가지 요인으로서 주변환경(상황, 사람, 사건 등), 개인이 이에 대처하는 행동 레퍼토리 그리고 주변의 압력을 평가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인지력이나 지각력을 들고 있다. Lewinshon(1974)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고 부정적 상호작용이 많을 때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하였다(권연하, 1994).

그러나 우울한 아동의 경우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 해결력을 보이고,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기의 주요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이 후에 유의미한 자살 율을 나타내거나 정신과적 서비스를 받는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다(배주미, 2000). 즉 아동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대처반응이나, 외부적인 대항 원천이 적으며, 정서적·지적으로 미숙하고 통제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우울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증상 및 극심한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의 증상을 나타내고 가출이나 자살,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 부적응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우울증 감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기감시, 자기평가, 자기강화의 결합에서 우울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Roth와 Rehm(1980)의 자기통제모형은 행동주의적 접근법의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며, 소수의 연구들만이 우울감소를 위

해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자기통제훈련모형은 우울한 사람이 자기감시에서 긍정적인 행동진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기분을 상승시키며, 자기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우울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한 행동범주를 설정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자신의 현재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기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외현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외현적 결과를 내현적인 사고나 자기지시 또는 심상의 형태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자기통제모형인 자기감시, 자기평가, 자기강화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권연하, 1994).

그런데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은 문제 해결의 정확성을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빠르거나 부정확한 반응양식을 가지며, 인지적 사고의 결핍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잘못 알고(Dodge, 1985), 다른 사람의 지각을 공감하는데 실패하거나(Ellis, 1982), 대인간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대안생성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Spivack & Shure, 1982) 수단보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부족을 야기한다(Kazdin, 1987). 즉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가서는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비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자기조절능력은 성장기의 아동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충동과 만족을 자제하여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표출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를 위하여 인내하는 능력을 갖게 함은 부모와 교사 나아가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이경임, 1996). 즉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나아가서는 학교와 사회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과 동시에 자기조절능력훈련을 통해 아동의 우울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예측할 수 있지만,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힌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혀 아동학대 관련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에 있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기조절능력 발달과 관련하여 아동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아동의 자기 조절능력과 우울성향은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아동의 자기 조절능력과 우울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우울성향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에서 거주지계층(상·중·하층)을 고려하여 유의 표집된 초등학교 4·6학년 남녀아동 612명이다. 모두 3개교를 대상으로 B초등학교에서 4·6학년 각각 3학급을, S초등학교에서 4학년 2학급, 6학년 3학급을, G초등학교에서 4·6학년 각각 4학급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2003년 아동학대 사례 판정 건수 중 연령에 있어서 전체 피해아동 중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9~11세 아동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기조절능력이 내재화되어 복잡한 책략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9~12세 경이며, 이

러한 능력은 책략 생성과 의식적 통찰능력의 발달과 함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아동 중기까지 서서히 발달한다(이현민, 1998)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이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우울성향을 조사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포함되었다.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서적 학대 척도

정서적 학대 척도는 박미란(2002)이 고성혜(1992)와 장화정(1998)이 제작한 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총 17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아동의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가끔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3점, '언제나 그렇다'에 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총 17~68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아동학대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0으로 나타났다.

### 2) 방임 척도

방임 척도는 홍은주(1998)가 아동학대국제상임위원회(ISCCA : 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n Child Abuse)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한 황영희(1987)의 척도와 고성혜(1992)가 제작한 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서, 아동의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었다'에 1점, '일년에 1~2번'에 2점, '2~3개월에 1~2번'에 3점, '한달에 1~2번'에 4점, '일주일에 1번 이상'에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총 12~60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방임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 척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김문신(2002)이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발한 SCRS(Self-Control Rating Scale)를 이순규(1995)가 변안한 것을 참고로 아동의 수준에 맞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총 33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33~165점의 점수분포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으로 나타났다.

### 4) 아동용 우울 척도

아동의 우울척도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Kovacs와 Beck(1977)이 만든 성인 우울 검사(BDI)를 번역하고 표준화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와 정은주(2001)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는 만 8세~13세 아동을

위한 것이며 총27항목으로, 아동은 제시되어 있는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총 0~5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하기에 앞서 2004년 2월 8일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 6명(학급 성적 상·중·하 아동 각 2명씩 선정)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 작성에 15~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예비조사 내용을 참고로 하여 대상 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 및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 12일~2월 14일까지 3일에 걸쳐 인천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의 4·6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3개 초등학교, 19학급, 총 696부를 배부하였으며 전원 회수되었다. 그중 미기재 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84부를 제외한 총 612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for Windows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lpha$ ,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전반적인 경향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경우 정서적 학대의 전체 평균은 1.17(표준편차=.21)이었으며, 방임의 전체 평균은 1.46(표준편차=.52)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표 1>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의 경우 한번 이상의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 중 424명(69.3%)이, 방임의 경우 적어도 한번 이상의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 중 466명(76.1%)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한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 보다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동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 분포도  
N=612, 단위: 명(%)

점 수	정서적 학대	방 임
0	188(30.7)	146(23.9)
1	113(18.5)	112(18.3)
2	70(11.4)	104(17.0)
3	63(10.3)	68(11.1)
4	52( 8.5)	65(10.6)
5	41( 6.7)	40( 6.5)
6	28( 4.6)	36( 5.9)
7	17( 2.8)	17( 2.8)
8	17( 2.8)	9( 1.5)
9	6( 1.0)	7( 1.1)
10	10( 1.6)	5( 0.8)
11	4( 0.7)	2( 0.3)
12	2( 0.3)	1( 0.2)
13	-	-
14	1( 0.2)	-

\*점수: 개개의 아동이 경험한 적이 있는 학대 문항 수

〈표 2〉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612

문항	M	SD
너 보다 못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	1.37	.62
내쫓아 버리겠다	1.36	.56
꼴도 보기 싫다	1.33	.56
친구 집에 못 가게 한다	1.31	.60
바보, 개만도 못한 것 등의 욕을 한다	1.26	.51
오빠(언니)나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한다	1.24	.56
괜히 낳았다	1.18	.47
밖에 못 나가게 한다	1.15	.40
좋아하는 물건이나 동물을 없애 버린다	1.13	.39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으니,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1.11	.33
말 안 들으면 너를 버리고 도망가겠다	1.11	.36
학교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라	1.09	.33
아이에게 걸려온 전화를 화내면서 끊어버린다	1.06	.26
너만 없으면 좋겠다	1.06	.26
나가 죽어라	1.05	.23
옷을 벗겨서 문 밖으로 쫓아낸다	1.04	.21
골방이나 캄캄한 곳에 가둔다	1.03	.19

\*문항은 평균별 순위 순으로 나열하였음.

다음으로, 아동이 경험한 적이 있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정서적 학대 문항의 경우, 정서적 학대척도 17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너 보다 못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M=1.37)’의 아동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언어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내쫓아 버리겠다(M=1.36)’의 거부적 언어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꼴도 보기 싫다(M=1.33)’의 거부적 언어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친구 집에 못 가게 한다(M=1.31)’의 고립(격리)에 관한 문항, ‘바보, 개만도 못한 것 등의 욕을 한다(M=1.26)’의 경멸적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 ‘오빠(언니)나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한다(M=1.24)’의 차별/편애에 관한 문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이 비교적 적게 경험하고 있는 문항으로는 ‘너 같은 아이는 키우지 않을 테니 나가 죽어라(M=1.05)’의 적대적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 ‘옷을 벗겨서 문밖으로 쫓아낸다(M=1.04)’의 모욕/불안감에 해당하는 문항, ‘잘못했을 때, 골방이나 캄캄한 곳에서 한참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M=1.03)’의 고립(격리)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멸적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이 평균별 순위에서 1, 5위를 차지하였고, 거부적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이 평균별 순위에서 2, 3위를 차지해, 이로써 우리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은 정서적 학대에 있어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부감 표출이나 아동에게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비아냥거림의 언어적 학대를 보다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어머니에 의한 방임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612

문	항	M	SD
나만 놔두고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2.09	1.35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1.89	1.52
대화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		1.64	1.24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다		1.63	1.10
무슨 책을 보아도 아무 말 안한다		1.56	1.19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던지 상관하지 않는다		1.44	1.08
말을 걸어도 귀찮아하며 잘 상대해주지 않는다		1.36	.92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밥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있다		1.36	.91
밤늦도록 집밖에서 놀거나 지내도 나를 내버려 둔다		1.24	.81
이유 없이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 말 안한다		1.12	.64
옷을 챙겨주지 않아 계절에 맞지 않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낸 적이 있다		1.10	.42
아플 때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1.07	.41

\*문항은 평균별 순위 순으로 나열하였음.

또한 <표 3>에서 방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방임적도 12문항 중 아동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방임 문항은 ‘나만 놔두고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M=2.09)’의 아동에 안전소홀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아동이 많이 경험한 것은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M=1.89)’의 안전소홀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나와 대화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M=1.64)’의 애정소홀에 관한 문항,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 할 때가 있다(M=1.63)’의 애정소홀에 관한 문항, ‘무슨 책을 보아도 아무 말 안한다(M=1.56)’의 비행방조에 관한 문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이 비교적 적게 경험하고 있는 문항으로는 ‘이유 없이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 말 안한다(M=1.12)’의 비행방조에 관한 문항, ‘옷을 챙겨주지 않아 계절에 맞지 않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낸 적이 있다(M=1.10)’, ‘아플 때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M=1.07)’의

건강관리소홀에 관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관리소홀에 관련된 문항이 평균별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하였고, 애정소홀에 관련된 문항이 3, 4위를 차지해, 이로써 우리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감독 소홀이나, 애정표현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존재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된 방임을 보다 빈번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성향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방임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 t-test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각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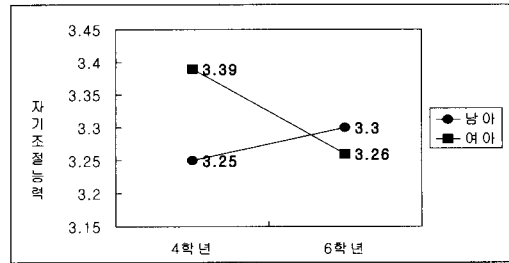
<표 4>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성향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정서적 학대	성별	.046	1	.046	1.081
	학년	.133	1	.133	3.123
	성별*학년	.054	1	.054	1.280
방임	성별	1.360	1	1.360	5.075*
	학년	.166	1	.166	.619
	성별*학년	.025	1	.025	.094
자기조절능력	성별	.367	1	.367	1.899
	학년	.269	1	.269	1.391
	성별*학년	1.177	1	1.177	6.085*
우울	성별	.041	1	.041	.694
	학년	.188	1	.188	3.166
	성별*학년	.085	1	.085	1.437

\* $p < .05$

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변인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F=6.085, p < .05$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4학년( $M=3.25$ ) 보다 6학년( $M=3.3$ )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는 4학년( $M=3.39$ ) 보다 6학년( $M=3.26$ )의 자기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는 남아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이경임, 1996)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반면에 여아의 경우 선행연구결과(이경임, 1996)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표 5>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방임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 $M=1.50$ )가 여아( $M=1.41$ )에 비해 방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학대를 받는 경우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박철민, 2002; 연진영, 1992; 홍수경, 2003)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표 5>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방임의 차이 검증 (N=612)

변인	구분	N	M(SD)	t
아동의 성별	남아	314	1.50(.53)	2.291*
	여아	298	1.41(.50)	

\* $p < .05$

### 3.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성향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라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먼저 <표 6>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 변인에서만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p < .05$ )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34세 이하 집단( $M=1.24$ )의 어머니가 45세 이상 집단( $M=1.14$ )의 어머니에 비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보다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고성혜, 1992)와 일치하는 것이다.

방임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p < .01$ )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결과 중졸 이하 집단( $M=1.61$ )의

〈표 6〉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 성향의 차이 검증 (N=612)

구분	구분	N	M(SD)	t/F	scheffé	
정서적 학대	어머니 연령	34세 이하	45	1.24(.24)	3.038*	a
		35~44세 이하	516	1.16(.20)		a b
		45세 이상	45	1.14(.15)		b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67	1.18(.19)	.587	
		고졸	332	1.15(.20)		
		대졸 이상	177	1.17(.20)		
어머니 취업유무	유	345	1.16(.20)	.151		
	무	238	1.17(.20)			
방임	어머니 연령	34세 이하	45	1.53(.51)	.456	
		35~44세 이하	516	1.45(.52)		
		45세 이상	45	1.47(.45)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67	1.61(.59)	4.903**	a
		고졸	332	1.44(.51)		b
		대졸 이상	177	1.39(.44)		b
어머니 취업유무	유	345	1.50(.53)	-2.670**		
	무	238	1.39(.46)			
자기조절능력	어머니 연령	34세 이하	45	3.28(.42)	.055	
		35~44세 이하	516	3.30(.45)		
		45세 이상	45	3.28(.33)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67	3.25(.45)	1.026	
		고졸	332	3.30(.40)		
		대졸 이상	177	3.34(.48)		
어머니 취업유무	유	345	3.27(.41)	1.818		
	무	238	3.34(.46)			
우울	어머니 연령	34세 이하	45	.60(.28)	2.727	
		35~44세 이하	516	.52(.23)		
		45세 이상	45	.52(.23)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67	0.63(.26)	8.483***	a
		고졸	332	0.50(.21)		b
		대졸 이상	177	0.51(.26)		b
어머니 취업유무	유	345	.52(.24)	-.429		
	무	238	.51(.22)			

\* $p < .05$  \*\* $p < .01$  \*\*\* $p < .001$  ab : 동일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어머니가 고졸 집단(M=1.44)과 대졸 이상의 집단(M=1.39) 어머니보다 방임을 보다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연진영, 1992; 이주연, 1996; 최은희, 2001)와 일치한다.

또한, 방임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p < .01$ )를 보였다. 즉 직업이 없는 집단(M=1.39)의 어머니 보다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집단(M=1.50)의 방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방임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결과(강성애, 2003; 연진영, 1992)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어머니 관련변인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우울성향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변인에서만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 $p<.001$ )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결과 어머니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 $M=0.63$ )의 아동이 고졸집단( $M=0.50$ )과 대졸 이상 집단( $M=0.51$ )의 어머니의 아동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김용수, 1992; 박경민, 1996; 최선운, 1999; 한유진, 1993)와 일치한다.

#### 4.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및 우울성향 간의 관계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및 우울성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상관( $r=-.33, p<.001$ )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방임도 자기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상관( $r=-.27, p<.001$ )이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언어를 통한 학대가 아동의 자아통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조운오, 2000)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 $r=.37, p<.001$ )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방임도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 $r=.35, p<.001$ )이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우울성향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대경험이 아동의 우울과 유

<표 7>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1. 정서적 학대	1.00			
2. 방 임	.42***	1.00		
3. 자기조절능력	-.33***	-.27***	1.00***	
4. 우 울	.37***	.35***	-.51***	1.00

\*\*\* $p<.001$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지영, 2002; 추소정, 2002)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상관( $r=-.51, p<.001$ )이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내재화문제(우울/불안 행동, 신체 증상, 위축 행동을 포함)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김호정, 2001)와 맥락을 같이한다.

#### 5.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정서적 학대, 방임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검증을 한 결과, 공차한계가 .10~.30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하였다.

<표 8>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동의 학년( $\beta=-.09, p<.05$ ),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beta=-.26, p<.001$ )와 방임( $\beta=-.15, p<.01$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정서적 학대, 방임의 상대적 영향력

예측변인	B	$\beta$	공차한계	VIF
아동의 학년	-.079	-.091*	.952	1.050
아동의 성별	.028	.032	.983	1.017
어머니 연령	.003	.005	.944	1.060
어머니 교육수준	.029	.049	.985	1.015
어머니 취업유무	-.044	-.050	.980	1.020
정서적 학대	-.570	-.260***	.786	1.272
방 임	-.131	-.149**	.776	1.289
회귀상수		4.167		
F		12.405***		
R <sup>2</sup>		.139		

아동의 학년 : 4학년을 1로, 6학년은 2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아동의 성별 : (여아=1, 남아=0)으로 가변인화 하였음.

어머니 연령 : 서열변수로 구간을 1부터 6으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어머니 교육수준 : 초졸~대학원 졸업까지를 1부터 5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어머니 취업유무 : (취업=1, 비취업=0)으로 가변인화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아동의 학년, 정서적 학대, 방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총 14%로 나타났고,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에 의하면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예언력( $\beta = -.26$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6.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검증을 한 결과, 공차한계가 .10~.30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0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

〈표 9〉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예측변인	B	$\beta$	공차한계	VIF
아동의 학년	-.020	-.042	.944	1.060
아동의 성별	.004	.008	.982	1.019
어머니의 연령	.002	.008	.944	1.060
어머니의 교육수준	-.015	-.047	.982	1.018
어머니의 취업유무	-.010	-.022	.978	1.023
정서적 학대	.187	.159***	.741	1.350
방 임	.077	.162***	.760	1.315
자기조절능력	-.208	-.388***	.861	1.161
회귀상수		.964		
F		29.421***		
R <sup>2</sup>		.305		

아동의 학년 : 4학년을 1로, 6학년은 2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아동의 성별 : (여아=1, 남아=0)으로 가변인화 하였음.

어머니 연령 : 서열변수로 구간을 1부터 6으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어머니 교육수준 : 초졸~대학원 졸업까지를 1부터 5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어머니 취업유무 : (취업=1, 비취업=0)으로 가변인화 하였음.

\*\*\* $p < .001$

단하였다.

〈표 9〉에서 아동의 우울성향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정서적 학대( $\beta = .159$   $p < .001$ ), 방임( $\beta = .162$ ,  $p < .001$ ), 자기조절능력( $\beta = -.388$ ,  $p < .001$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우울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총 31%로 나타났고,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에 의하면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예언력( $\beta = -.388$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 유형 중 어머니가 학대를 하면서도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유형에 국한하여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경향과 관련변인을 살펴보았으며, 아동학대와 자기조절 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발생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동에게 굴욕·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거부·경멸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와 감독을 소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가정의 아동 역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 스스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혹은 무관심하게 행동함으로써 아동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폭언, 무시, 경멸, 원망, 적대감, 무관심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부모의 부정적 감정 표출 역시 아동이 이후의 삶에서 맺게 되는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 및 예비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우울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4학년 보다 6학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나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이경임, 1996)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는 4학년 보다 6학년의 자기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이경임, 1996)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지연행동을 많이 나타내며(이수연, 1985; 정영숙, 1994), 아동이 현재 어떤 정서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김광웅·방은령, 1996)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추해 보면, 남아보다 성장발달이 빠른 여아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6학년)으로 정서와 감정이 불안정하며, 또한 사춘기와 관련하여 여아의 어머니의 경우 간섭과 통제를 많이 하게 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애정으로 여기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있어 아동의 성별과 학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Kinard와 Gelles와 Straus(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학동기의 여아는 남아보다 더 유순하고 성인의 말에 순종하여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남아가 많으며, 사춘기에 이르면 남아는 신체가 성장하고 힘이 세어져 부모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

러 여아의 경우 데이트 등 행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아가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된다(Biller & Solimon, 1986; Gil, 1971)고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성별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장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역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된 것이며, 국내의 선행연구 또한 아동의 성별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들의 관계를 연구자가 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대의 원인에 있어 아동 자신의 특성인 성별, 연령보다는 가정의 갈등적인 분위기 및 부부 불화도 정도가 아동학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방임의 경우 성별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방임의 하위문항을 검증해본 결과 아동의 안전관리소홀에 관련된 문항(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나만 놔두고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밤늦도록 집밖에서 놀거나 지내도 내버려둔다)과 비행방조문항(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던 시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 말 안한다, 무슨 책을 보아도 아무 말 안한다)에서 남아의 방임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위협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감독이나 비행에 대한 언급에 있어 어머니가 여아에게 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남아에게는 허용하는 양육행동을 취함으로써 남아의 방임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아일수록 많이 방임된다고 보고한 연진

영(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감독) 부재로 아동은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또래와 쉽게 어울릴 가능성과, 그러한 또래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방임과 관련하여 부모들에게 적절한 양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정서적 학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젊은 경우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젊은 어머니의 경우 아동양육의 경험부족이나 이른 결혼 생활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거나, 혹은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자녀에게 과도한 성취 압력을 가하게 되고, 훈육 때에도 체벌이나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학대 행동의 표출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성혜, 1992).

넷째,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방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방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정보와 양육기술의 부족,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성혜, 1992; 박미란, 2002; 연진영, 1992; 원지영, 1999; 이주연, 1996; 최은희, 2001).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방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다양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그것이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될 때 또는 아동을 장시간 혼자 둔다든지 아동

의 생활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든지, 아동의 욕구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등의 방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데 비해 마땅한 보육대안이 없는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강성애, 2003; 연진영, 1992).

다섯째,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 수용적이며 민주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거부적이고 엄격하며,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김용수, 1992; 박경민, 1996; 최선운, 1999; 한유진, 199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수용적이며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아동의 우울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 및 우울성향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 자율, 온정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발달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안미경, 1997; 홍애경, 2001; 조윤오, 2000)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어린 시절 형성되어야 할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로 인해 왜곡된 정서상태가 내면화

되어 우울/불안, 위축 및 애착장애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강지영, 2002; 김재엽·양혜원, 1998; 권자영, 1991; 박인아, 1999; 이해련, 1998; 정양숙, 2003; 추소정, 200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우울/불안 행동, 신체 증상, 위축 행동을 포함)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김호정, 2001; Eisenberg, 2000; Hart 등, 1997)와 일치한다.

일곱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정서적 학대, 방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년,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처음 유아는 스스로 언어가 조절의 수단이 되지는 못하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전단계의 외적 언어가 내면화되면서 내적 언어에 의해 자기조절이 가능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Vygotsky(1978)의 이론적 근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방임보다 언어적 학대가 포함된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덟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영향력이 방임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우울성향에서는 방임의 영향력이 정서적 학대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적인 심리적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무관심이나 양육소홀로 인한 방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울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세변인 중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노출된 아동의 우울성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즉 아동의 내적보호요인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학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성향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부정적인 태도를 묻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연구 자료가 비밀 보장을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타인에게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여 응답 자체가 은폐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대 피해자로서의 아동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나 행동 관찰법, 면접법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피해자인 아동의 지각정도에 의해 학대 경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내 서로 다른 지위를 갖고 있는 아동과 그의 어머니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학대와 자기조절능력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이 심각한 일탈적 양육태도로 생각하지 않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성애(2003). 유아기 부모의 생활사적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및 방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영(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 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영숙·홍강의(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6, 37-52.
- 권연하(1994). 자기통제훈련이 여중생들의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방은령(1996).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사.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 표현과 정서 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다미(2001).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미(2000).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5).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3).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특성 및 가정환경과 아동방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수(1991). 아동기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1999). 아동방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1996).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 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5, 37-62.
-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6). 자녀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민(1996). 아동의 우울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어머니 언어 통제 유형의 관계 : 일 광역시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2002).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아(1999). 가정폭력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민(2002). 아동학대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경화(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현 외7(2003). 신고 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안미경(199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린이헌장 <http://home.cein.or.kr/%7Ex1najang/news/child.htm>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임(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수행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숙(1998). 아동방임·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규(1994).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아동의 자주적 학습태도 및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1995).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1998).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은주(2001). 교사용 아동 우울 성향 척도의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양숙(2003). 부부폭력과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운오(2001). 피학대 경험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아동학대에방센터(2004).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중앙아동학대에방센터(2003). 200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중앙학대에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 추소정(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윤(199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1999).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1). 부모의 아동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철(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수준과의 상관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경(200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으로 본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애경(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희(1984).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ronfreed, J.(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ickona(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 Holt.
- Beck, A. T.(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arper & Row.
- Billler, H. B., & Solomon, R. S.(1986) Child maltreatment and paternal deprivation, Lexington : D. C. Health and company.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pp. 39-101). Hillsdale, NJ : Erlbaum.
- Burgess, R., & Conger, R.(1978). Family interaction in neglectful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66.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

-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thy, B. C., Wosinski, M., Polazzi, L., Carlo, G., & Juhnke, C.(1996). The relation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974-92.
- Emery, R. E.(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 Fabes, R.,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lavell, J. H.(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776-783.
- Fontana, V. J.(1973). The diagnosis of the maltreatment syndrome in children, *Child Abuse-commissions and omissions*, Toronto : Butterworth Company, 69-72.
- Garbarino, J., Guttman, E., & Seeley, J.(1986). *The psychologically battered child : Strategies for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 Gelles, R. J., & Straus, M. A.(1979).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Journal of Social Issues*, 53 (2), 15-39.
- Gelles, R. J.(1982). Problems in defining and labeling child abuse. In Starr, R. H.(Ed.) *Child Abuse Prediction-Policy Implications*. Cambridge :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30.
- Gil, D. G.(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637-648.
- Green, A(1985). Child Abuse and Neglect. IN :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Ed. by Shaffer D, Ehrhard AA, Greenhill LL. New York : The Free Press, pp 315-335.
- Halperin(1979).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S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Hoffman-Plotkin, D., & Twentyman, C. T.(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 Justice, B., & Justice, R.(1976). *The Abusing Family*.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Kazdin, A. E., Colbus, D., & Rodgers, A.(1986). The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41-245.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1962). The battered-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7-24.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7(6), 1020-1029.
- Kinard, E. M.(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82-100
- Kopp, C. B.(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54.
- Lengua, L. J., West, S. G., & Sandler, I. N.(1998).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symptomatology in children : Addressing contamination of measures. *Child Development*, 69, 164-181.
- Luria, A.(1961).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s*, New York : Appleton.
- Martin, M. J., & Walters, J.(1982). Familial correlation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67-276.
- O'Brien, B. S., & Frick, P. J.(1996). Reward dominance : Associations with anxiety, conduct prob-

- lems, and psychopathy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223-240.
- Oosterlaan, J., & Sergeant, J. A.(1996). Inhibition in ADHD, aggressive, and anxious children : A biologically based model of child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19-36.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Rothbart, M. K., & Bates, J. E.(1998). Temperament.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 105-176). New York : Wiley.
- Rothbart, M. K., & Derryberry, D.(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Vol. 1, pp. 37-86). Hillsdale, NJ : Erlbaum.
- Seligman, M. E. P.(1974).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 R. J. Friedman and M.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 L. : V. H. Winston & Sons.
- Sweet, J. J., & Restick, P. A.(1979). The maltreatment of children :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40-59.
- Vygotsky, L.(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 A :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son, J., Fields, J. H., & Rose, S. A.(1987). Symptoms, temperament, resiliency, and control in anxiety-disorder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22.

---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4월 30일 채택